

2017. 6. 23. 시행 서울시 9급 국어

지식형 문항 (13)	국어 문법 국어 규범 (7)	음운론 (1) 형태론 (1) 통사론 (1) 의미론 (1) 표준 발음법 + 로마자 표기법 (1) 띄어쓰기 (1) 한글 맞춤법 (1)
	어휘 · 한자 (4)	고유어 (1) 속담 (1) 한자 (2)
	고전 문법 (2)	훈미정음 제자 원리 (1) 국어의 역사 (1)
지문 분석형 문항 (7)	독해 (4)	논리적 오류 (1) 글의 구성 (1) 내용의 추리 (2)
	현대 문학 (3)	현대 시 (1) 현대 소설-시점 이론 (1) 현대문학사 (1)



★적중

번호	유형	서울시 SOS(모의고사)	선재국어 마무리	그 밖의 교재
6	로마자 표기	7회 2번, 10회 14번(보충)	142쪽	반쪽 3회 4번·7회 2번
7	한글 맞춤법	4회 8·9번(변형), 14회 15번	36쪽, 90쪽	
8	고전 문법	1회 19번(변형), 12회 20번		
12	한자의 표기		279쪽	반쪽 9회 10번(어휘·한자)·11회 10번(어휘·한자)
13	음운 현상	2회 7번, 13회 4번		
16	속담			반쪽 5회 3번(어휘·한자)
17	한자의 독음	14회 1번	277쪽	7회 7번(어휘·한자)·8회 6번(어휘·한자)
18	띄어쓰기	1회 2번, 2회 8번, 3회 18번, 4회 11번, 8회 19번, 11회 8번		
20	현대 문학사	9회 9번, 10회 16번, 14회 10번		

★총평

올해 역시 '지식형 강화'라는 서울시 시험의 특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식형 문제에서만 총 13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시험의 전반적인 경향은 예년과 동일하였으나, 전체적인 수준은 예년에 비해 다소 평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얼마 전 치러진 지방직 9급 시험은 어휘와 한자 때문에 점수가 하락한 시험이었다. 이에 비해 올해 서울시 시험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한자가 출제되어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어휘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무난한 수준이었다.

먼저 국어 문법과 규범을 살펴보면, 총 7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음운론에서부터 띄어쓰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 고르게 출제된 것이 특징이다. 그간 많이 연습한 유형이 나왔으므로, 기본 학습을 충실히 한 학생들은 문법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한자와 어휘를 살펴보면, 한자는 기본 강의를 제외하고서라도 서울시 SOS 강의에서 대부분 학습했던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점수의 등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반면 어휘 중 속담 문제는 문제 풀이 과정에서 풀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어휘력이 있다면 문맥상 유추가 가능한 문제였지만, 고유어 문제는 문맥으로 유추할 수가 없는 문제여서 고득점을 얻은 학생들도 이 문제에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컸다고 평가된다.

특기할 점은 고전 문법에서만 2문항이 출제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어사가 나왔다는 점이다. 국어사 문제는 9급 주요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던 것이라, 결국 고득점을 위해서는 전 영역을 고르게 학습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문제였다.

독해는 4문항이 출제되었으나 지문의 길이가 짧고 평이하여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논리적 오류가 오랜만에 출제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문학 작품과 이론 역시 익숙한 지문과 내용이 출제되었으며, 이번에도 서울시 시험의 특징이라고 할 현대 문학사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문학사 문제는 예년에 비해 다소 난도가 낮았으나 학습을 하지 않으면 점수를 얻지 못하는 영역이므로, 이를 대비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얻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난도는 내려갔으나 전 영역이 골고루 출제되었다는 점, 그동안 출제율이 높지 않았던 영역에서 3문항 정도 출제되었다는 점, 그리고 현대 문학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출제되었다는 점 등을 이번 시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제 7급을 제외하고 상반기의 주요 시험은 마무리되었다. 하반기 시험 일정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추가 시험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의 일정을 계획하는 학생들은 바로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다시 학습에 정진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합격이라는 값진 열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2017 서울시 9급 해설이 이어집니다.

1. 다음 중 반의 관계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살다 - 죽다 ② 높다 - 낮다 ③ 높다 - 젊다 ④ 뜨겁다 - 차갑다

정답 ①

해설 반의어는 크게 정도(등급) 반의어, 상보 반의어, 방향(대칭) 반의어로 나눌 수 있다. ① ‘살다 - 죽다’는 상보 반의어이고, 나머지 ②·③·④는 정도(등급) 반의어이다.

상보 반의어는 첫째, 의미 영역을 둘로 나누기 때문에 중간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중간 상태가 없기 때문에 한쪽을 부정하면 곧 다른 쪽을 긍정하는 것이 된다. 셋째, 중간 상태가 없기 때문에 정도(등급) 반의어와 달리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으며, 비교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정도(등급) 반의어: 두 단어 사이에 등급성이 있어서 중간 단계가 있는 반의어

*방향 반의어: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는 반의어

2. 다음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과 단어 형성 원리가 같은 것은?

<보기>

개살구, 헛웃음, 낚시질, 지우개

- ① 건어물(乾魚物) ② 금지곡(禁止曲) ③ 한자음(漢字音) ④ 핵폭발(核爆發)

정답 ①

해설 <보기>에서 제시된 ‘개살구, 헛웃음, 낚시질, 지우개’는 모두 접사가 붙은 파생어이다. ‘건어물(乾魚物)’의 ‘건(乾)-’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마른’ 또는 ‘말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파생어는 ①이다. (예 건가자미/건과자/건바닥/건어물/건포도 등)

나머지 ②·③·④는 모두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 합성어로 볼 수 있다.

*개-살구: ‘아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헛-웃음: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낚시-질: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지우-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3. 다음 중 한글 창제 당시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가 쓰인 것은?

- ① 님금 ② 늦거사 ③ 바울 ④ 가비아븐

정답 ④

해설 ‘가비아븐’에서 ‘ㄱ, ㅇ’은 훈민정음 초성 중 기본자이고, ‘ㅂ’은 기본자 ‘ㅁ’의 가획자이다. 그러나 ‘빙’은 순음 ‘ㅃ’ 아래에 ‘ㅇ’을 이어서 순경음을 만든 것으로 초성 17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글은 초성 17자를 병서 또는 연서하는 방식으로 글자들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 중 연서법(連書法, 이어쓰기)은 ‘빙, 풍, 뽕, 땡’을 설명한 것으로, 순음 아래에 ‘ㅇ’을 이어서 순경음을 만드는 글자 운용법이다. 현실 음운으로서 우리말에 표기된 것은 ‘빙’뿐이다.

*보충 자료: 훈민정음 초성 17자

五音 \ 制字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아음(牙音)	ㄱ	ㅋ	ㅇ
설음(舌音)	ㄴ	ㄷ, ㅌ	ㄹ
순음(唇音)	ㅁ	ㅂ, ㅍ	
치음(齒音)	ㅅ	ㅆ, ㅈ	ㅊ
후음(喉音)	ㅇ	ㆁ, ㆅ	

4. 다음 예문과 같은 유형의 논리적 오류가 나타난 것은?

이 식당은 요즘 SNS에서 굉장히 뜨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을 거야.

- ① 이 식당 음식을 꼭 먹어보도록 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집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맛이 괜찮은가 봐.
- ② 누구도 이 식당이 맛없다고 말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집이란 소리지.
- ③ 여기는 유명한 개그맨이 맛있다고 한 식당이니가 당연히 맛있겠지. 그러니까 꼭 여기서 먹어야 해.
- ④ 이번에는 이 식당에서 밥을 먹자. 내가 얼마나 여기서 먹어 보고 싶었는지 몰라. 꼭 한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어.

정답 ①

해설 추론의 오류를 밝혀내는 문제이다. 예문은 온라인상의 인기를 근거로 특정 식당의 음식이 맛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에 해당한다.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란 논지를 따르는 대중의 규모에 비추어 참을 주장하는 오류를 말한다. ① 역시 그 식당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근거로 그 식당을 평가한 것이므로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이 식당의 음식이 맛없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이 식당의 음식이 맛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에 해당한다.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란 반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 논제가 참이라고 단정하는 오류를 말한다.

③ 개그맨의 평가를 근거로 식당 음식의 맛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에 해당한다.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란 논지와 관계없는 분야에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와 논지가 참임을 주장하는 오류를 말한다.

④ 개인적인 감정을 강조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일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연민(동정)에 호소하는 오류’에 해당한다. 연민(동정)에 호소하는 오류란 연민이나 동정 등의 감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논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를 말한다.

5. 다음 글에 나타난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애하고 신용을 하니까 인제 한 십 년만 더 있으면 한밑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 줄 그런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삼아 가지고 나는 삼십 년 동안 예순 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십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십만 원이면 죄선* 부자로 쳐도 천석꾼이니, 뭐 땡땡거리고 살 게 아니라구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구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암전 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죄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구식 여자는 암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지인하고 교제하는 데 안됐고, 신식 여자는 식자나 들었다는 게 건방져서 못 쓰고, 도무지 그래서 죄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다 제바리여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 뭐. 인물이 개개 일자로 이쁘겠다, 암전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겠다, 좀이나 좋아!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갈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지인 학교라야지 죄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 버려 놓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죄선말은 짝 걸어치우고 국어만 쓰지요.
이렇게 다 생활법식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다이쇼: 주인 *죄선: 조선 *내지인: 일본인

- 채만식, <치숙>

- ① 서술자가 내지인을 비판함으로써 자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전지적 존재로서 인물과 사건을 모두 조망할 수 있다.
- ③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의 내면을 추리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서,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작품은 채만식의 <치숙>으로, 풍자적, 비판적 성격의 단편 소설이다. 제시문에서 서술자 '나'는 '죄선인(조선 사람)'은 비판하고 '내지인(일본 사람)'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나'의 이러한 태도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판단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독자는 이러한 서술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물질적 삶을 추구하는 현실 순응적·기회주의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역(逆)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술자 '나'가 신빙성 없는 존재이며, 이 글이 그러한 서술자에 대한 독자의 비판적 시각을 유도하고 있다는 ④가 가장 옳은 설명이다.

채만식 소설의 반어적 성격은 부정적 인물을 소설의 전면에 내세우고 긍정적 인물을 후면에 내세우거나 희화화하는 데서 얻어진다. 작품 전체에서 서술자 '나'는 1인칭 관찰자로, 주인공인 사회주의자 '아저씨'를 비난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사회적 모순을 인식하고 있는 아저씨를 긍정적 인물로 평가하고, 역사의식이 부재한 '나'를 부정적 인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서술자 '나'는 내지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 글과는 거리가 멀다. <치숙>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한다.

*채만식, <치숙>

1. 갈래: 단편 소설, 풍자 소설
2. 성격: 풍자적, 반어적
3.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4. 배경: 일제 강점기, 군산과 서울
5. 표현과 특성: 경제적 수탈과 정치적·문화적 탄압이 감행되던 일제 강점기와 왜곡된 사회를 풍자·비판함.
6. 주제: 일제 강점기의 현실 적응적 생활관과 사회주의 사상적 삶의 방식과의 갈등
7. 해설: <치숙>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체제와 모순을 풍자한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반어적 기법이다. 즉 작가는 겉으로는 '나'를 긍정적 인물로, 사회주의자인 '아저씨'를 부정적 인물로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일제에 순응하여 사는 '나'의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반어적 기법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여타의 채만식 소설과 같이 판소리 사설을 사용하여 작품의 풍자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으며, 속어와 비어를 많이 사용하여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6. 다음 중 제시된 단어의 표준 발음과 로마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선릉[선능] - Seonneung ② 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
- ③ 낙동강[낙동강] - Nakddonggang ④ 집현전[지편전] - Jiphyeonjeon

정답 ②

해설 '학여울'은 'ㄴ' 음이 첨가되는 경우를 설명한 <표준 발음법> 제29항에 따라 [항녀울]로 발음한다. 또한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는 <로마자 표기법> 제3장 1항에 따라 'Hangnyeoul'로 표기한다.

오답 풀이 ① 선릉[설릉] - Seolleung: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③ 낙동강[낙동강] - Nakdonggang: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④ 집현전[지편전] - Jiphyeonjeon: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7.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 ① 방학 동안 몸이 부는 바람에 작년엔 산 옷이 맞지 않았다.

- ②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③ 오늘 뒤풀이는 길 건너에 있는 맥줏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한문을 한글로 풀이한 이 책은 중세 국어의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정답 ③

해설 ·뒤풀이(○): 뒷말이 예사소리가 아닌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시작될 때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맥줏집(○): ‘맥줏집(麥酒-)’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 사잇소리가 나는 단어이므로 바르게 표기되었다.

오답 풀이 ① 부는(×) → 붙는(○):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의 의미로 쓸 때에는 ‘붙다’가 바른 표기이다. ‘붙다’는 ‘붙어 - 붙으니 - 붙는’와 같이 활용을 한다. ‘붙어 - 부니 - 부는’과 같이 활용하는 ‘붙다’는 ‘바람이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다 / 유행, 풍조, 변화 따위가 일어나 휩쓸다’ 등의 의미로 쓰인다.

참고로 ‘붓다’는 ‘부어 - 부으니 - 붓는’과 같이 활용을 하며,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 / 성이 나서 뻘로통해지다’의 의미이다.

- ② 넉넉치(×) → 넉넉지(○):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④ 로써(×) → 로서(○): ‘로써’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로서’로 표기해야 한다.

8. 다음 중 국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띄어쓰기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규범화되었다.
- ② 주격 조사 ‘가’는 고대 국어에서부터 등장한다.
- ③ ‘·’는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빙’은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뵙’으로 변화하였다.

정답 ①

해설 띄어쓰기는 1896년 <독립신문 창간사>에서 시도되었으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띄어쓰기가 규범화된 것은 1933년에 조선어 학회(지금의 한글 학회)가 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法統一案, 발표 당시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쓰는 맞춤법의 바탕이 되었다.

오답 풀이 ② 주격 조사 ‘가’는 17세기 이후 근대 국어에서 출현하였다.

③ ‘·’의 음가는 17세기에, 글자는 20세기에 소멸되었다. 따라서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지 않았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④ ‘빙’은 세종과 세조 당시의 표기에만 사용되었으므로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었다. 하지만 한글의 문자 운용 방법 중 ‘빙’은 연서법에 의해 만든 글자이고, ‘뵙’은 병서법에 의해 만든 글자이므로 ‘빙’이 ‘뵙’으로 변화하였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또한 ‘빙’은 15세기 말에 이르러 반모음 ‘ㅍ/ㅑ’로 바뀌었다. (예 더벅 > 더워)

9. 다음 문장들을 두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문맥상 가장 먼저 와야 할 문장은?

㉠ 신라의 진평왕 때 놀치는 백제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병졸들에게, “봄날 온화한 기운에는 초목이 모두 번성하지만 겨울의 추위가 닥쳐오면 소나무와 잣나무는 늦도록 잎이 지지 않는다. ㉡ 이제 외로운 성은 원군도 없고 날로 더욱 위태로우니, 이것은 진실로 지사·의부가 절개를 다하고 이름을 드러낼 때이다.”라고 훈시하였으며 분전하다가 죽었다. ㉢ 선비 정신은 의리 정신으로 표현되는 데서 그 강인성이 드러난다. ㉣ 죽죽(竹竹)도 대야성에서 백제 군사에 의하여 성이 함락될 때까지 항전하다가 항복을 권유받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죽죽이라 이름 지어 준 것은 내가 추운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으며 부러질지언정 굽힐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아서 항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결의를 밝혔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해설 두괄식 문단이란 주지를 앞에 제시한 문단을 말한다. ㉠, ㉡, ㉢은 모두 ‘선비 정신은 의리 정신으로 표현될 때 그 강인성이 드러난다’는 주지를 뒷받침하는 예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글이 두괄식 문단으로 전개되려면 주지에 해당하는 ㉢이 가장 먼저 와야 한다.

이 글을 논리적으로 배열할 때, 주지 문장인 ㉢이 맨 앞에 나온 뒤 이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 일화(예시)가 나와야 한다. 일화는 각각 ㉠·㉡을 하나로, ㉢을 또 다른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중 ㉢이 “죽죽도”로 시작되므로 ㉠ - ㉡ - ㉢의 순서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 선비 정신은 의리 정신으로 표현될 때 그 강인성이 드러난다. → ㉠+㉡ 예시1: 놀최의 일화 → ㉢ 예시2: 죽죽의 일화

10. 다음 중 <보기>의 시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 별 하나에 사랑과 /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 별 하나에 시와 /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 ① 화자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 ② 화자의 내면과 갈등관계에 있는 현실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별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를 나타낸다.
- ④ 별은 현실 상황의 변화를 바라는 화자의 현실적 욕망을 상징한다.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작품은 운동주의 <별 헤는 밤>으로,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성찰을 주제로 한 시이다. 화자는 ‘별’을 통해 ‘사랑, 동경, 시, 어머니’ 등 자신이 바라고, 그리워하는 세계를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별’이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를 나타낸다는 ③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화자는 담담한 고백적 어조를 취하고 있으며, 특별한 청자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②·④ 3연에서 화자는 별을 다 헤지 못하는 까닭을 이야기하고 있다. 화자는 현실적 제약을 인식하지만(“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자신과 갈등하는 현실을 비판하거나, 현실적 욕망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다음 중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닐대다 - 별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갓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
- ② 굼적대다 - 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
- ③ 꼬약대다 - 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조금씩 씹다.
- ④ 끝끝대다 - 마음에 마땅찮아 혀를 차는 소리를 자꾸 내다.

정답 ②

해설 ‘굳적대다’는 ‘굳적거리다’와 같은 말로, ‘몸이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 또는 몸을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의 의미이다. ‘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라는 뜻의 단어는 ‘금실대다(=금실거리다)’이다.
오답 풀이 ① 가닐대다(=가닐거리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갓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 /보기에 매우 위태롭거나 치사하고 더러워 마음에 자린 느낌이 자꾸 들다.

12.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한자로 적합한 것은?

토의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공동의 사고 과정이다.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의 선택에 필요한 판단 준거를 토대로 대안을 분석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 ① 토의 - 討議 ② 사고 - 思考 ③ 선택 - 先擇 ④ 준거 - 準據

정답 ②

해설 생각하고 궁리한다는 뜻의 ‘사고’는 ‘思考(생각 사, 상고할 고)’로 바르게 썼다.
오답 풀이 ① 토의(討議: 칠 토, 의논할 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함. *義: 옳을 의
③ 선택(選擇: 가릴 선, 가릴 택):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 *先: 먼저 선
④ 준거(準據: 준할 준, 의지할 거):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 =표준(標準) *舉: 들 거

13. 음운 현상은 변동의 양상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 음운 현상의 유형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하나는?

- ㉠ 대치 - 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 탈락 - 한 음소가 없어지는 음운 현상
- ㉢ 첨가 - 없던 음소가 새로 끼어드는 음운 현상
- ㉣ 축약 - 두 음소가 합쳐져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 도치 - 두 음소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음운 현상

- ① 국 + 만 → [궁만] ② 물 + 난리 → [물랄리] ③ 입 + 고 → [입꼬] ④ 한 + 여름 → [한녀름]

정답 ④

해설 음운 변동에 관한 문제이다. ‘한 + 여름 → [한녀름]’이 되는 것은 <표준 발음법> 제29항 ‘ㄴ’ 첨가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④는 ㉣ ‘음운의 첨가’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①·②·③은 ㉠음운의 대치와 관련이 있다.
㉣ 음운의 도치는 한 단어나 어군의 내부에서 두 음소 또는 그 연속이 서로 위치를 바꾸는 현상을 말한다. 예 배꼽(< 빗복): ‘ㅂ’과 ‘ㄱ’의 위치를 바꿈.

- 오답 풀이 ① 자음 동화 중 비음화(음운의 대치)
② 자음 동화 중 유음화(음운의 대치)
③ 된소리되기(음운의 대치)

14. 문맥상 다음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의 역사가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자연사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반복을 반복할 뿐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수고> 말미에,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이다”라고 적은 바 있다. 또한 인간의 활동에 대립과 통일이 있듯이, 자연의 내부에서도 대립과 통일은 존재한다. (㉠) 마르크스의 진의

(眞意) 또한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변증법적 지양과 일여(一如)한 합일을 지향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 ① 즉 인간과 자연은 상호 간에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 ② 따라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
- ③ 즉 자연이 인간의 세계에 흡수·통합됨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
- ④ 그러나 인간사를 연구하는 일은 자연사를 연구하는 일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정답 ②

해설 생각된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는 서로 구분되며 대립되는 것이라고 진술한 뒤, ‘그런데’ 다음부터 마르크스의 글을 근거로 들어 이를 반박하고 있다. 문맥상 ㉠ 다음의 마르크스도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일여(一如)한 합일을 지향했다”는 내용은 ㉠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사와 자연사를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파악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②가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인간과 자연의 경쟁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제시문은 역사 연구에 관한 글이 아니므로, 논점 이탈된 진술이다.

15. 다음 <보기>의 글 다음에 나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찝찝해서 심기가 훌가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들 뺄이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 법정, <거꾸로 보기>

- ① 자연 속에서 무소유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
- ②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③ 종교적 의지를 통해 현실을 초월해야 한다.
- ④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전개될 글의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보기>는 법정 스님의 수필 <거꾸로 보기> 중 일부분이다. 글쓴이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던 일상사를 마치고 무심히 바라본 풍경에서 “갑자기 산이 달리 보”이는 경험을 한 뒤 놀라워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 다음에는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④가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16. 다음 <보기>의 속담과 가장 관련이 깊은 말은?

<보기>
 ㉠ 가물에 도랑 친다
 ㉡ 까마귀 미역 감듯

- ① 헛수고 ② 분주함 ③ 성급함 ④ 뒷고생

정답 ①

해설 ㉠ ‘가물에 도랑 친다’는 한창 가물 때 애쓰며 도랑을 치느라고 분주하게 군다는 뜻으로, 아무 보람도 없는 헛된 일을 하느라고 부산스레 굽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까마귀 미역 감돏’은 까마귀는 미역을 감아도 그냥 감다는 데서, 일한 자취나 보람이 드러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과 ㉡의 속담과 가장 관련이 깊은 말은 아무 보람도 없이 애를 쓴다는 뜻의 ㉠ ‘헛수고’이다.

오답 풀이 ㉣ 뒷고생: 나이가 들어서 하는 고생

17. 다음 중 한자어와 독음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陶冶 - 도치 ㉡ 改悛 - 개전 ㉢ 殺到 - 살도 ㉣ 汨沒 - 일몰

정답 ㉡

해설 ‘改悛(고칠 개, 고칠 전)’은 ‘개전’으로 바르게 읽었다. ‘悛’을 ‘俊(준걸 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답 풀이 ㉠ 陶冶(질그릇 도, 녹일 야): 도기를 만드는 일과 쇠를 주조하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닦아 기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冶 다스릴 치

㉢ 殺到(빠를 쇠, 이를 도): ‘殺’은 ‘죽일 살’로도 읽고, ‘빠를 쇠’로도 읽는데 여기서는 ‘빠를 쇠’로 읽는다. ‘전화, 주문 따위가 한꺼번에 세차게 몰려들 / 어떤 곳을 향하여 세차게 달려들’의 의미이다.

㉣ 汨沒(골몰할 골, 빠질 몰):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한 가지 일에만 파묻힘.

18. 다음 <보기>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보기>

㉠창 밝은 가을이다. 남쪽으로 난 창으로 햇빛은 하루하루 깊이 안을 넘본다. 창가에 놓인 우단 의자는 부드러운 잿빛이다. 그러나 손으로 ㉡우단천을 결과 반대 방향으로 쓸면 슬쩍 녹듯빛이 돈다. 처음엔 짙은 썩색이었다. 그 의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30년 동안은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하는 일이라곤 햇볕에 자신의 몸을 잿빛으로 바라는 ㉣일 밖에 없다.

- 박완서, <엄마의 말뚝>

- ㉠ ㉠ ㉡ ㉡ ㉢ ㉢ ㉣ ㉣

정답 ㉢

해설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의존 명사 ‘년’은 앞말에 붙여 쓸 수 있다 또한 ‘동안’은 어느 한때에서 다른 한때까지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쓴다. 따라서 ㉢ ‘30년∨동안’은 바른 표기이다.

오답 풀이 ㉠ ㉠ 창밖: 창문의 밖을 뜻하는 ‘창밖’은 한 단어이므로 반드시 붙여 쓴다.

㉡ ㉡ 우단∨천: ‘우단천’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우단(羽緞): =벨벳. 거죽에 곱고 짧은 털이 촘촘히 돋게 짠 비단

㉣ ㉣ 일밖에: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19. 다음 <보기>의 ㉠~㉣ 중 주어가 다른 하나는?

<보기>

진찰의 첫 단계로 임상심리 검사를 시작해 보니 환자의 증세가 참으로 특이하더군요. 도대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진술 거부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터무니없이 불안해하거나 자기 생각을 거짓말로 슬슬 ㉠속여넘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덮어놓고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게 틀림없다고 고집이지 뭡니까. 아니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도 모두 그렇게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것을 확인시키려는 노력에서 ㉡그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물론 나중까지 환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받아 놓지 않은 건 아니었지요. 한데 나중에 보호자 ㉢연락을

취해 보니 그것도 모두가 거짓말이었던 말입니다. 그런 주소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다시 진짜를 대보라고 했지만 어디 대답이 쉽습니까. 게다가 이 환자는 소지품 중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만한 것을
㉠지니고 있지 않았어요.

- 이청준, <소문의 벽>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해설 밑줄 친 서술어에 호응하는 주어를 찾는 문제이다. 주어는 문장의 주성분이지만 문장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거나, 앞의 문장에서 나왔던 주어가 뒤 문장에서 되풀이될 때에는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주어가 없는 경우, 앞뒤 문맥이나 대명사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의 주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유추할 수 있는 경우로, 앞 문장의 주어인 '우리'이다. 나머지 ㉠, ㉡, ㉣의 주체는 '환자'이다.

20. 다음 예문에 제시된 시사(詩史)의 전개가 순서에 맞게 배열된 것은?

- ㉠ 농민의 애환을 다룬 신경림의 <농무>를 비롯하여, 고은이나 김지하 등 참여 시인들의 작품은 현실에 저항하는 문학의 실천성을 보여주었다.
㉡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이 출간되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떠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APF)이 결성되어 리얼리즘 계열의 시가 창작되기도 했다.
㉢ 전쟁에 참여한 시인들은 선전 선동시 등을 창작하기도 했으나 구상의 <초토의 시>처럼 황폐화된 국토의 모습을 통해 전쟁이 남긴 비극을 그려내는 작품들이 나타났다.
㉣ 모더니즘 시운동을 선도한 시인들이 도시적 감수성을 세련된 기교로 노래했다. 김기림은 장시 <기상도>를 통해 현대 문명을 비판했다.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정답 ②

해설 ㉠ 1970년대: 신경림의 <농무>는 1973년 간행된 <농무>에 실렸으며,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억눌린 분노를 표출한 시이다.

1970년대는 독재 정치의 암울한 현실에서 민중 문학이 대두된 시기이다. 고은, 김지하, 조태일, 이성부 등 참여 시인들은 민중시를 발표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저항 정신을 드러냈다. 김지하의 <오적>, <타는 목마름으로>, 고은의 <화살> 등이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이다.

㉡ 1920년대: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은 1926년에 간행되었고,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APF)은 1925년에 결성되었다.

㉢ 1950년대: 구상의 <초토의 시>는 1956년에 간행된 <초토의 시>에 실린 총 15편의 연작시로,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적 시대 상황과 그곳에서의 강인한 생명력을 주제로 한다. 이밖에 유치환의 <보병과 더불어>, 조지훈의 <다부원에서> 등도 한국 전쟁의 비극성을 주제로 한 시들이다.

㉣ 1930년대: 1920년대 말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초현실주의, 주지주의, 이미지즘 등을 바탕으로, 1930년대에는 구체적 이미지에 의한 지성적인 시가 등장했으며,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상황적 인식과 비판적 감수성을 표출했다. 특히 김기림이 시의 기술주의를 주장하면서 모더니즘 시 운동은 더욱 심화되었다.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이상의 <오감도>, 김광균의 <와사등>, 정지용의 <유리창> 등이 이러한 경향을 보인 작품들이다.

김기림의 <기상도>는 1936년 간행된 <기상도>의 표제시이다. 모두 424행의 장시(長詩)로 태풍의 내습이라는 상황을 설정하여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을 시대순으로 배열하면 ② '㉡(1920년대) - ㉣(1930년대) - ㉢(1950년대) - ㉠(1970년대)'가 적절하다.